

진도권을 마스코트로!

1988년 서울 올림픽의 심벌 마크는 과연 어떤 것이 되어야 할 것인가?

물론 정치적이나 건설적인 것 보다는 현실적인 것으로서 반드시 마스코트의 참뜻을 갖춘 것으로서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마스코트로 채택,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올림픽을 상징하고 있는 기나 표어로 IOC에서 관장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미 고정, 불변한 것이 되어 있는 것이나 그 대회 심벌 마크는 그 대회 때마다 주최국에서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1988년 서울 올림픽 마스코트도 IOC에서 온 국민의 중지를 모아 선택되어야 하므로 이것 역시 중요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그 대회 심벌 마크로 그 대회를 치르는 주최국의 문화 수준을 집약해서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또 정치성을 면 지나친 선전이나 과장 따위는 참가 선수단이나 모든 관광객들에게 도리어 친밀감이나 깊은 감명을 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보편적인 것으로서 남녀노소 누구나 갖고 싶고, 같이 즐길 수 있는 것을 예술적인 작품으로 선택 제정 되었을 때 비로서 1988년 서울 올림픽 대회의 영구 불변할 심벌 마크를 얻게 될 것이다.

우리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바와같이 IOC를 표상하는 것으로 올림픽 기가 있다. 이것은 1917년에 초대 올림픽을 창시한 프랑스의 교육가이며 역사가인 쿠베르탱 남작에 의하여 발상된 것으로 즉 왼쪽에서부터 청색, 황색, 흑색, 녹색, 적색의 5색의 고리를 W자 모양으로 배치

한 것으로서 5대륙의 융합 변영 우의를 상징하며 또 세계의 모든 나라의 국기 중에는 반드시 1색이 들어 있다는 점에서 국가를 초월한 인류 공동의 것임을 의미한다.

또 한편 올림픽의 표어는 보다 더 높이 보다 더 빨리 보다 더 강하게 등으로 보다 높고 큰 능력의 개발을 추구하는데 뜻이 있다고 본다.

그런데 마스코트는 주최국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각종 공식 비공식 기념품 등등에 포함되어 새겨지게 되는 중요한 마크이기 때문이다.

1956년 멜버른 올림픽 대회에서는 마스코트가 정식으로 채택된 것은 아니지만 호주의 특산인 캥가루 상을 내세웠고 또 호주 국민이 가장 사랑하고 좋아하는 뿔테리어를 핸드백 대신에 끌고 다니는 모습을 많이 보았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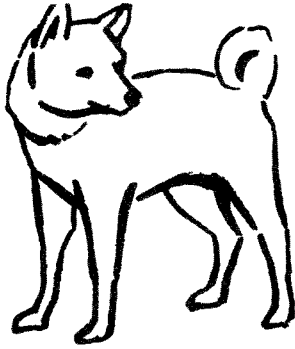
역대 올림픽중 마스코트가 정식으로 채택한 대회는 1960년 로마 올림픽 대회로 알고 있다.

이 대회 마스코트 즉 포스터 그림에 두 아이가 개의 조상인 이리의 젖을 빨아먹고 있는 모양이다. 이것은 로마를 건국한 로무루스와 그 쌍둥이 동생인 러무스 황제가 같이 이런 젖을 먹고 양육 되었다는 전설에 유래가 된 것이다.

1964년 동경 올림픽 대회는 일본 국기를 내세웠다. 그러나 국기나 국화같은 것을 마스코트로 사용한다는 것은 그 뜻을 잘못 이해하는 데서 온 처사라고 본다.

1968년 멕시코 올림픽 대회에서는 해시계를 표장으로 썼다.

1972년 뮌헨 올림픽 대회는 도이치 원산인 다크운트(세계적으로 유명한 곰 사냥개)를 뮌헨 올림픽 대회 특유의 색조로 옷을 입혀 마스코트로 만들어 뮌헨 올림픽 대회에 참가한 선수



李 丙 祥

(한서기업주식회사)

경남 울산시 장생포동222-4

단과 수많은 관광객들에게 절찬을 받게되어 그때부터 마스코트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 왔다고 할 수 있다.

과거의 심벌 마크는 국가적 상징인것을 많이 채택하였으나 이제부터는 마스코트의 참 뜻을 지닌 단순한 동물로 변모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1976년 몬트리얼 올림픽 대회는 바닷 너구리 비바가 순박한 모양으로 엮드려 있는 모습이었다. 이 비바 역시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단원은 물론이고 많은 관광객들에게 호평을 받은 것이 사실이다.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대회는 새끼곰이 재롱을 떠는 모습을 기념품 같은데 새겨 넣어 환영을 받았다고 한다.

우리 한국에서도 제42회 세계 사격 선수권 대회의 마스코트로 제정되었던 다람쥐는 홍보용으로 널리 쓰여지지는 않았지만 다소 인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1988년 서울 올림픽 대회 마스코트는 과연 어떤것이 가장 적합한 것일까? 최근 매스컴에 의하면 까치 호랑이 황소 다람쥐, 학, 인삼, 진도개 등등 많은 대상이 거론되고 있는 모양이다.

그러나 마스코트는 이미 전술한 바와 같이 정취적인 것이나 전설적이 것을 제외하고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것으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흔히 있고 또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친밀감을 주어 사랑 받을수 있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마스코트가 될수 있는 것이며 여기에는 이론이 없을 것으로 믿는다.

그렇다면 우리 한국진도개상을 예술적인 작품으로 만들어 1988년 마스코트로 삼자는 것이

다.

다시말하면 전세계에 개를 기르지 않는 국가나 민족은 없는 것이며 더우기 남아프리카 벽지에 살고 있는 식인종도 개를 기르고 있으며 자기 집에서 기르던 개는 잡아먹는 법이 없다고 한다.

하여튼 개는 어떠한 동물에 비하여도 그 형태나 성질상으로 보아 사람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을수 있는 애정이 있는 동물로서 오랜 옛날부터 사람과 살아오면서 인류문화 발전에 기여한바 그 공적이 크다고 아니할수 없다.

다시말하면 고래로부터 개를 천시한 민족은 쇠퇴하였고 개를 사랑하고 귀중히 여겨 잘 기르고 그 용도에 따라 개량 번식하여 잘 이용한 국가 민족은 문화인으로서 발전하였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예를들면 현재 전세계에서 인정받는 공인견 약 120종 중에서 영국은 유명한 사냥개 잉글리쉬 셋터, 잉글리쉬 포인터 등 약 60종이 영국이 원산지라는 것이다.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군용견인 도위치 세파트운트를 작출한 독일도 약 27종의 견종을 개량번식하였다. 프랑스도 약 20종의 견종을 갖고 있으며 그밖에 모든 문명국으로 자처하는 국가민족 한두 마리의 공인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끝으로 1988년 서울 올림픽대회 마스코트는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한국 진도개 상을 심벌 마크로 채택제정 한다면 선수단을 물론이고 모든 관광객들에게 절찬을 받게될 것으로 확신하는 나머지 강호제현의 성원을 얻고저 한다.